

# 게임·의료·교육·예술...가상현실을 만나다

<VR·Virtual Reality>



'광주 VR RUG 전략수립' 컨퍼런스...내달 2일 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 3D 프린팅 기반 수술도구 활용 무령왕릉 내부·해외 미술관 관람 항공·중장비 등 가상공간 훈련 산업 방향·사례 발표...토론회도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산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게임 뿐 아니라 의료,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VR기기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파리 루브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비행기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다.

오는 9월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 VR 산업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 VR RUG 전략수립 컨퍼런스-가상현실, 현실로 다가온 미래기술'이 오후 2시~밤10시 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조선대 정형외과 문영래 교수는 '의료분야 가상·증강현실의 활용'에 대해 발표한다. '증강 현실' 진료 시스템을 개발한 문 교수는 VR 의료분야 국내 권위자로 꼽힌다. CT나 엑스레이 등 기존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표준모델을 만들어,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도 의사와 환자가 아픈 부위를 함께 보며 치료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수술 도구도 활용할 수 있다.

김태원 현대오트모터 과장은 '자동차 리얼 타임 엔진 기반 디지털 소품 구축 사례'에 대해 들려준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 가상환경에서 원하는 색상이나 옵션을 둘러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간 제약이 있는 오프라인 매장 한계

점을 극복한 사례다.

체험형 VR관광시스템도 각광받는 분야이다. 실제 들어가 볼 수 없는 왕릉 내부를 살펴본다던가 멀리 떨어진 미술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박진호 서울대 융합기술원 연구원은 '국내 문화유산 VR 콘텐츠 현황과 미래제안'에 대해 발표한다. 박 연구원은 이미 구축된 무령왕릉, 석굴암 등 국내 문화유산 VR체험 시스템을 통해 영화·관광, 게임 산업을 이야기한다.

직업훈련 부분에서도 VR은 유용하다. 항공·중장비·철도·의료 등 가상공간에서 미리 훈련해 봄으로써 사고 위험과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다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발표하는 '가상훈련-기술공학 직업훈련을 위한 가상훈련 사례'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밖에 이영호부장 KT 미래사업개발단 과장은 '5G 네트워크 기반의 VR 서비스/콘텐츠 차별화 전략 및 사례'를 발표한다. 차세대 VR기기로 미국 실리콘밸리 월드컵 테크 챌린지 최종본선에 진출한 김진태 누누로 대표는 디바이스 분야를 설명한다.

정범준 상화기획 대표는 'VR을 통한 도심형 Theme park, Retail, 그리고 교육사업의 변화'에 대해 소개한다.

오후 5시10분부터는 고광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는 'VR산업발전 토론회'가 열린다. 발표자 뿐 아니라 김일 매니아마인드 대표, 이기형 아시아문화원 팀장, 박병욱 스튜디오 이온 이사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온오프믹스 홈페이지에서 (onoffmix.com) '광주 VR전략수립 컨퍼런스'를 검색한 후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10-247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 VR산업 선도 역량 갖춰 ‘광주 브랜드’ 세계에 내 놓겠다”

이정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난해까지의 화두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올해 화두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입니다. 특히 광주는 VR분야에서 산업을 선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VR Rug'를 통해 구글, 애플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7월 출시한 모바일 게임 '포켓몬 GO'는 게임에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을 접목한 독특한 시스템으로 전세계적 사랑을 받고 있다. 덩달아 우리나라에서도 VR과 A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30일 VR 분야 컨소시엄 'VR RUG'(VR Round Up Gwangju)를 발표한 이정현(57)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만나 광주 VR 산업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앞서 이 원장은 VR과 AR을 따로 구분 짓지 않고 모두 가상현실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증강+가상현실'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올해 3월부터 'VR RUG'를 결성해 전문가 자문과 의견을 모아왔다”며 “오는 9월2일 VR 관련 컨퍼런스를 열어 브랜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VR RUG'에는 고광희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카이스트 우윤택 교수, 문영래 조선대 교수 등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한다.

진흥원은 이들과 협업해 게임, 의료, 예술,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VR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와 기기 등을 제작하고 브랜드 'VR RUG'를 출시해 세계시장에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광주는 지스트, 조선대 등 연구자들이 다수 보유하고 있어 연구 역량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진흥원을 비롯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나주 한곡컨텐츠진흥원 등 VR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광주시가 펼치는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활용하면 판로 개척에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흥원은 콘텐츠코리아랩 등 추진하고 있는 11개 사업이 가상현실과 관련된 사업으로 매년 5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오는 10월말에는 CGI센터 1층에 25억이 투입된 글로벌게임센터가 문을 연다. VR 분야를 특화해 시민들이 가상현실기기 체험,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다. 지역 VR게임 제작 업체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VR과 연계한 '3D프린터 메이커스 카페'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3D프린터를 이용해 탁상시계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컴퓨터 모니터가 아닌 가상현실 환경에서 아이টে임을 기획하고 디자인해 3D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이다.

이 원장은 하드웨어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 인재 육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흥원에는 콘텐츠코리아랩, 스튜디오장작소, 청년히어로즈 등을 통해 약 200개 청년창업팀을 육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5년간 320억을 투입할 예정으로 신선했던 아이디어만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에는 200개 팀이 모두 참여하는 창업전진대회를 열어 교류를 이끌고 제작의지를 북돋울 예정이다.

“원장에 취임할 1000억원 국책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상반기에만 700억 원은 확보하며 첫발을 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대기업과 지역 청년 연계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언젠가는 광주에서 세계적인 히트상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유서깊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자연을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하반기 직원모집  
프린트 22~55세, 주방찬모 (출퇴근 및 숙식가능)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